

SK COMPANY Analysis



Analyst

나승두

nsdoo@sk.com

02-3773-8891

Company Data

자본금	78 억원
발행주식수	1,556 만주
자사주	63 만주
액면가	500 원
시가총액	2,816 억원
주요주주	
조정일(외5)	30.01%
트러스트자산운용	5.14%
외국인지분률	8.50%
배당수익률	0.00%

Stock Data

주가(18/09/07)	18,100 원
KOSDAQ	818.86 pt
52주 Beta	1.03
52주 최고가	19,200 원
52주 최저가	9,510 원
60일 평균 거래대금	59 억원

이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코나아이 (052400/KQ | 매수(신규편입) | T.P 23,000 원(신규편입))

아직도 '코나카드'를 모르시나요?

- 선불형 카드 플랫폼 '코나(KONA)카드', 출시 3개월만에 46 만장 이상 발급
- SK 텔레콤 '0(영)카드', 인천시 '인처너카드' 코나카드 제휴로 발급되는 중
- 올해는 본격적인 외형 성장 국면, 내년부터 이익 성장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
- 글로벌 카드사 지문인식 카드 도입 추진, 코나아이 기술력 경쟁 우위에 있음
- 과거 스마트카드 도입으로 인한 성장속도(2005~2015년) 뛰어넘을 가능성도 충분

선불형 카드 플랫폼 '코나(KONA)카드'의 등장

코나아이는 자체 개발한 IC Chip OS(COS, Chip Operation System)를 기반으로 금융 IC Chip 카드/통신용 USIM/전자여권(e-Passport)/전자주민증 및 보건증 등 스마트카드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 EMV(IC 카드 국제기술 표준) 기반의 선불형 카드 플랫폼 '코나(KONA)카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새로운 성장 국면을 맞았다.

올해 본격적인 외형 성장 국면 진입

코나(KONA)카드는 출시 이후 불과 3개월만에 46만장 이상 발급되었다. 올해 200만 이상 발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① SK 텔레콤이 신규 런칭한 1020 브랜드 '0(영)카드'가 코나카드와의 제휴로 발급되는 중이고, ② '인처너카드'와 기존의 지역경제상품권 등을 기프트 카드 형태로 전환 발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 Visa/Master 등 글로벌 카드사들이 카드 분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지문인식 카드 도입을 준비 중인 데, 코나아이의 지문인식 카드 제작 기술이 경쟁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3,000 원 제시하고 커버리지 개시

코나카드의 B2C 사업은 물론 B2B/B2G 사업까지 본 궤도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는 가입자 순증에 초점을 맞추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이익성장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글로벌 대형 카드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문인식 카드 전환 발급까지 더해질 경우 2019년 이후의 성장 속도는 과거 2005년 이후 기록했던 동사의 2차 성장 국면을 뛰어넘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영업실적 및 투자지표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2018E	2019E	2020E
매출액	억원	2,167	1,179	1,021	1,384	1,853	2,305
yoy	%	12	-45.6	-13.4	35.5	34.0	24.4
영업이익	억원	361	-58	-98	19	200	371
yoy	%	21.3	적전	적지	흑전	976.3	85.1
EBITDA	억원	478	45	12	131	313	482
세전이익	억원	376	-61	-389	63	314	547
순이익(지배주주)	억원	288	-12	-369	24	237	414
영업이익률%	%	16.7	-5.0	-9.6	1.3	10.8	16.1
EBITDA%	%	22.1	3.9	1.2	9.5	16.9	20.9
순이익률	%	13.5	-0.4	-37.2	1.8	12.8	18.0
EPS	원	1,854	-78	-2,369	151	1,523	2,659
PER	배	18.5	N/A	N/A	119.6	11.9	6.8
PBR	배	2.6	1.1	1.4	2.0	1.7	1.4
EV/EBITDA	배	10.4	34.8	133.4	20.4	8.9	5.8
ROE	%	15.2	-0.6	-23.4	1.7	15.2	22.0
순차입금	억원	-445	-398	-327	-176	-71	-85
부채비율	%	37.6	36.1	39.1	40.5	42.6	39.7

카드업계 판도를 뒤흔드는 '코나(KONA)카드'

스마트카드 관련 전반적인 사업
영위하던 코나아이, 코나카드
출시와 함께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코나아이는 자체 개발한 IC Chip OS(COS, Chip Operation System)를 기반으로 금융 IC Chip 카드/통신용 USIM/전자여권(e-Passport)/전자주민증 및 보건증 등 스마트카드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05년 이후 약 10여년간 국내외 카드 발급 증가/스마트카드 도입 등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였으나, 최근 2년간은 다양한 결제 수단의 등장 및 경쟁 심화 등으로 성장세가 주춤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 2월부터 EMV(IC 카드 국제기술 표준) 기반의 선불형 카드 플랫폼 '코나(KONA)카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새로운 성장 국면을 맞았다.

'코나(KONA)카드'의 출시는 단순 스마트카드 제조사였던 코나아이가 지급결제 사업에 직접 진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벌써 46만장 이상의 코나카드가 발급되었다. 올해 1분기 말부터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나섰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불과 3개월만에 이뤄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올 연말까지 총 200만장 이상 발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나카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장 유사한 형태를 꼽자면 '스타벅스 카드'를 들 수 있다. 스타벅스가 자체 발급한 충전형 스타벅스 카드를 이용할 경우 다양한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결제 수수료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코나카드도 이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스타벅스 카드는 스타벅스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플랫폼인 반면, 코나카드는 BC 카드와 매입대행 계약을 맺음으로써 업종 구분 없이 전국 500여만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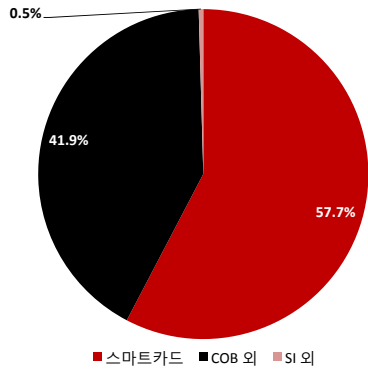
코나카드는 선불형/체크카드 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스타벅스/커피빈/GS25 등 이용빈도가 잦은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할인 제휴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처와 관계없이 무조건 결제 금액의 0.2%가 할인된다. 비슷한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체크카드가 하나 둘씩 등장하고 있지만,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실적 충족 조건이 없고, 캐시백/청구 할인 등의 형태가 아닌 즉시 할인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단연 경쟁 우위에 있다는 판단이다.

코나카드 대표 할인 혜택

제휴사	할인 혜택	내용
오크밸리(수영장/사우나)	50% 할인	무제한 할인
커피빈	20% 할인	무제한 할인, 모바일 바코드 결제 시
스타벅스	30% 할인	월 최대 5,000원 혜택 제공
교보문고	10% 할인	무제한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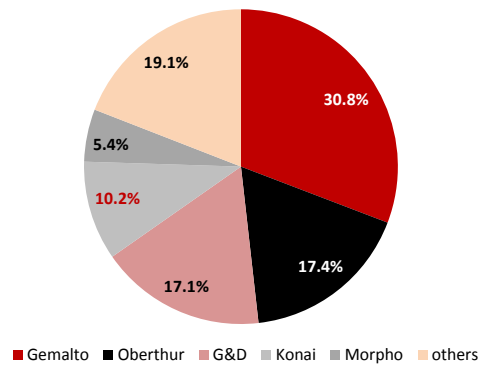
자료 : 코나아이, SK 증권

코나아이 매출 비중(2017년 기준)



자료 : 코나아이, SK 증권

글로벌 IC Chip 기반 Payment Card 점유율



자료 : 코나아이, SK 증권 / 주 : 2015년 기준

선불 충전형 카드 '코나(KONA)카드'



자료 : 코나아이, SK 증권

코나아이



자료 : 코나아이, SK 증권

코나카드 서비스 구조



자료 : 코나아이, SK 증권

‘코나(KONA)카드’의 대표 수익 모델 네 가지

① 카드결제 수수료 수익

가맹점으로 받는 수수료 중 BC 카드 매입 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수익(매출)으로 인식한다. 현재 코나카드는 BC 카드와 매입대행 제휴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고객이 코나카드를 사용함으로써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카드 결제 수수료의 일부를 매입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BC 카드에 지급하게 된다. 결국 코나카드를 이용한 거래액이 늘면 늘수록 매출이 늘어남을 의미하는데, 선불형 카드의 특성 상 결제를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사전에 충전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래액을 사전에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② 제휴 가맹점 할인 혜택 Share

코나카드를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혜택 중 일부는 선매입 대량구매 형태로 준비되는데, 제휴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할인 혜택 중 일부는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 때 발생한 수익은 회사의 이익으로 남기도 하지만, 선매입 대량구매 적용이 불가능한 부분에서의 할인 혜택 제공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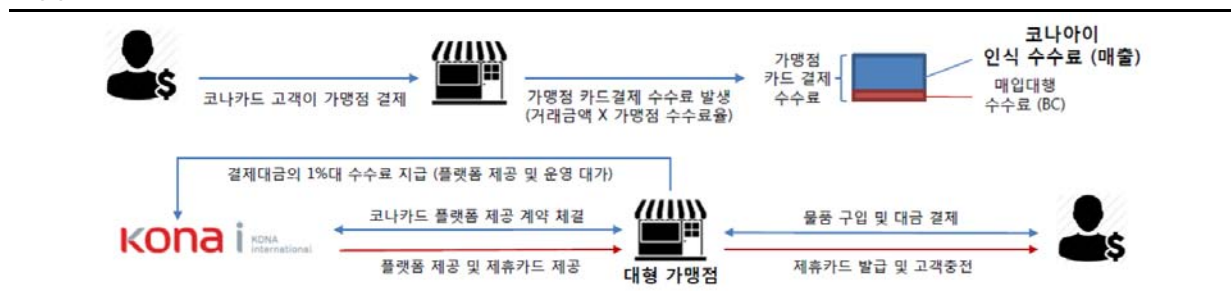
③ 선수금 단기 운용 수익

선(先)충전된 금액의 30%는 Deposit 형태로 보관하지만 70%는 단기자금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하여 연 평균 1~2%의 안정적인 운용 수익을 목표로 선수금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제휴 가맹점 할인 혜택과 마찬가지로 충전금액(선수금)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

④ 코나카드 플랫폼 제공 및 운영 수수료 수익

자체 카드 플랫폼 도입을 희망하는 대형 가맹점에 코나카드 플랫폼을 제공하고 결제 및 운영 수수료 수익을 얻는다. 이미 B2B/B2G 형태로 코나카드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으며, 코나카드 플랫폼을 도입하는 곳은 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코나카드 Business Model



자료 : 코나아이, SK 증권

B2C : SK 텔레콤 제휴 멤버십카드 '0(영)카드'

SK 텔레콤 신규 1020 브랜드
'0(영)카드' 코나카드와의 제휴로
발급되는 중

SK 텔레콤은 지난 8월 1020 세대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브랜드 '0(영)'을 공식 런칭하면서 코나카드 플랫폼을 활용한 '0(영)카드' 출시했다. 코나카드의 할인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사용자가 단골로 지정하는 가맹점에 대해 15% 할인 혜택 등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결국 '0(영)카드'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코나카드 사용자가 늘어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0(영)카드'는 SK 텔레콤에서도, 코나카드에서도 신청/발급이 가능하다. 과거 SK 텔레콤 가입자 유치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TTL/ting 브랜드의 성공 사례를 감안하면, '0(영)' 브랜드 가입자도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 SK 텔레콤과의 성공적인 제휴 사례를 바탕으로 자체 카드 플랫폼을 도입하고자 하는 대형 가맹점과의 B2B Business 로 확산될 개연성도 크다.

SK 텔레콤 제휴 멤버십카드 '0(영)카드'



자료 : 코나아이, SK 증권

SK 텔레콤 1020 브랜드 '0(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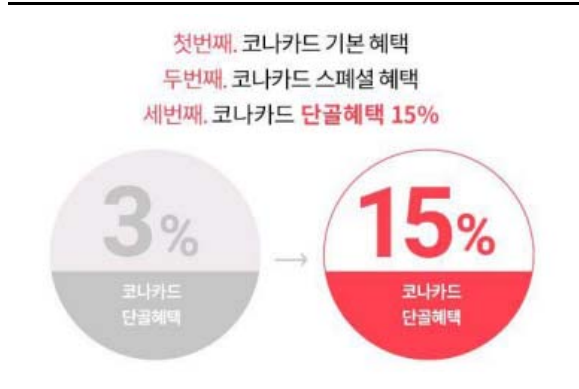
자료 : SK 텔레콤, SK 증권

코나카드 홈페이지 내에서 신청 가능한 0(영)코나카드



자료 : 코나아이, SK 증권

코나카드 기본 혜택 위에 더해지는 SKT 혜택



자료 : 코나아이, SK 증권

B2G : ‘인처너(INCHEONer)카드’의 확산 기대

지역경제상품권의 카드 형태 전환도 빠르게 진행 중, 인처너카드 시작으로 지자체 확산 가능성 높음

‘인처너(INCHEONer)카드’는 인천광역시 내에서 사용 가능한 기존의 지역상품권(지류 형태)을 기프트 카드 형태로 전환 발급하는 사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현재는 인천시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불 수단의 한 축으로 자리잡는 중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복지 혜택을 종이 상품권과는 달리 고스란히 해당 지역에만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타 지방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카드 발급과 더불어 제공되는 지역 어플리케이션은 카드 사용을 위한 접속 빈도가 높기 때문에 지역 소상공인들의 마케팅 채널 및 시정 홍보/공지사항 전달 창구로 활용도 가능하다. 지역 상품권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 바우처 및 공무원 복지수당 지급 등에도 확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코나카드 플랫폼의 다양한 활용가치가 부각될 전망이다.

인천시 제휴카드 ‘인처너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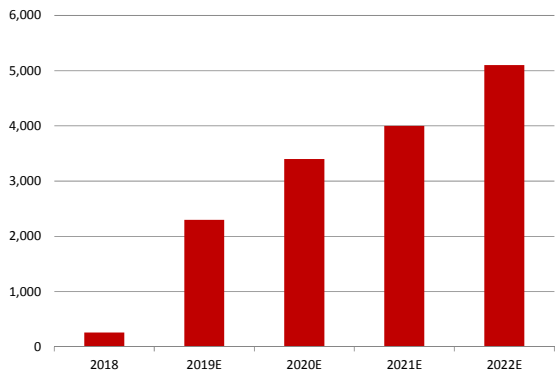
자료 : 코나아이, SK 증권

인처너카드 주요 혜택



자료 : 인천시 블로그 '온통인천', SK 증권

수도권 지역경제상품권 발행규모 전망 (단위: 억원)



자료 : 언론 종합, SK 증권

코나아이 주요 제휴 카드



자료 : 코나아이, SK 증권

지급결제 수단의 구조적인 변화

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 사용률
높아지는 중, 신용카드 대비
부족했던 할인 혜택 및 서비스도
개선 중

조세특혜제한법에 의거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만료 시한이 1년 연장되었다. 애당초 2018년 만료 예정이었으나 직장인 세 부담 증가 등의 우려가 커 1년 더 연장이 결정되었다.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계속 낮추고, 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높이는 방식으로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다. 현재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가 가능한 반면 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지급결제 동향’을 살펴보면 체크카드와 선불카드의 약진을 확인할 수 있다. 2배에 달하는 소득공제율 차이도 크지만, 최근에는 개인 소비 금액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다. 또 코나카드와 같이 체크카드/선불카드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 및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평균 지급카드 이용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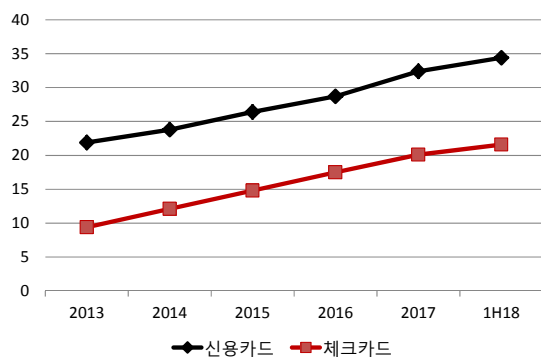
(단위: 십억원 %)

구분	2016	2017		2018			
		상반기	(증감률)	하반기	(증감률)	상반기	(증감률)
신용카드	1,677	1,762	(8.3)	1,757	(1.8)	1,827	(3.7)
개인	1,207	1,302	(11.4)	1,358	(9.1)	1,410	(8.3)
법인	471	461	(0.4)	399	(-17.2)	417	(-9.4)
체크카드	424	458	(13.4)	474	(7.0)	491	(7.1)
선불카드	<u>2.2</u>	<u>2</u>	<u>(-19.1)</u>	<u>2</u>	<u>(7.7)</u>	<u>2</u>	<u>(12.4)</u>
기타	0.9	1	(13.8)	1	(30.8)	1	(19.4)
합계	2,104	2,224	(9.3)	2,235	(2.8)	2,321	(4.4)

자료: 한국은행, SK 증권

신용 및 체크카드 결제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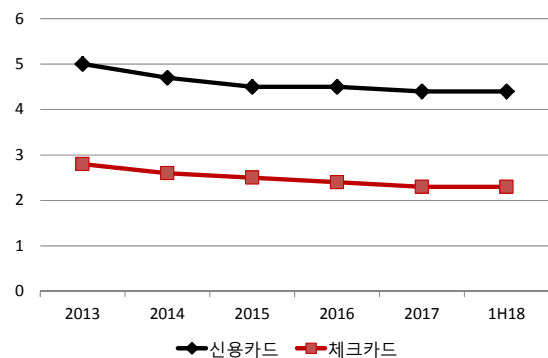
(단위: 백만건)



자료: 한국은행, SK 증권

신용 및 체크카드 건당 결제금액

(단위: 만원/건)



자료: 한국은행, SK 증권

지문인식 스마트카드 도입 확산

글로벌 카드사 중심으로 카드 분실 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지문인식 카드 도입 추진 중, 코나아이 기술력 가장 경쟁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

카드 분실 및 도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기/불법 거래 방지를 위해 지문인식 스마트카드 도입이 시도되고 있다. 글로벌 카드사인 'Visa Card'의 경우 지문카드 도입 시범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현재 코나아이도 'Visa Card'의 국제 지문카드 규격 개발 등에 참여하고 있다. 'Master Card'도 2021년까지 기존 신용카드를 지문인식 신용카드로 전면 교체(약 33억 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여타 카드사(社)들도 지문인식 카드 도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사의 지문인식 카드 기술은 경쟁사 대비 가장 앞서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접촉 기기에서 전력을 끌어와서 인식하는 배터리 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카드 수명 및 사용 편의성을 대폭 끌어올렸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지난 2017년에는 독일 항공사 'Lufthansa'의 자회사인 'AirPlus International'에 지문인식카드를 공급한 사례도 있다. 지문인식카드는 비단 금융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원증/입출입 카드 등 출입 통제를 비롯한 인증/보안이 필요한 영역에 광범위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인 확인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인 생체인증 기술이 도입된다는 점에서 향후 시장 성장성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코나 지문인식(fingerprint) 카드



자료 : 코나아이, SK 증권

Visa 지문인식 카드 사용 사례



자료 : Youtube 영상 갈무리, SK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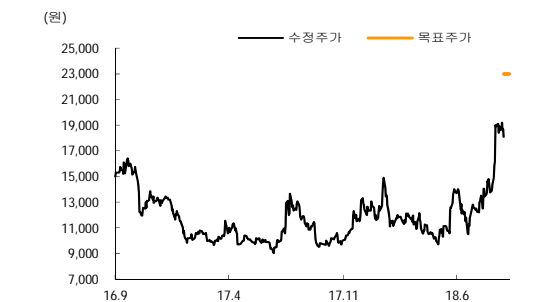
올해는 Turn-around, 내년에는 고성장

**올해 Turn-around 확실시,
내년부터 코나카드 가입자 기반
이익성장 국면 진입 예상**

상반기까지 영업적자를 기록했던 코나아이는 하반기 코나카드 사업 매출 증가에 힘입어 연간 소폭의 흑자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본격적인 코나카드의 외형성장이 시작되었던 2 분기는 1 분기 대비 영업적자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식 런칭 초기에는 광고비 집행 등으로 인한 판관비 증가가 있었지만, Viral 마케팅이 가능해 진 지금은 비용 절감이 가능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이다.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3,000 원 제시하고 커버리지를 개시한다. 목표주가는 내년 예상 EPS 에 과거 10 여년간 Historical Average P/E 14.8x 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코나카드의 B2C 사업은 물론 B2B/B2G 사업까지 본 궤도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는 가입자 순증에 초점을 맞추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이익성장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글로벌 대형 카드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문인식 카드 전환 발급까지 더해질 경우 2019 년 이후의 성장 속도는 과거 2005 년 이후 기록했던 동사의 2 차 성장 국면을 뛰어넘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일시	투자 의견	목표주가	목표가격 대상시점	괴리율	
				평균주가대비	최고(최저) 주가대비
2018.09.10	매수	23,000원	6개월		
2018.03.30	Not Rated				



Compliance Notice

- 작성자(나승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 종목별 투자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 판단 3 단계 (6 개월 기준) 15% 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 미만 → 매도

SK 증권 유니버스 투자등급 비율 (2018 년 9 월 10 일 기준)

매수	92.97%	중립	7.03%	매도	0%
----	--------	----	-------	----	----

재무상태표

월 결산(억원)	2016	2017	2018E	2019E	2020E
유동자산	1,713	1,350	1,412	1,657	1,995
현금및현금성자산	886	694	98	80	166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68	161	218	293	364
재고자산	480	378	512	686	853
비유동자산	821	618	663	789	980
장기금융자산	26	22	23	23	23
유형자산	181	176	149	128	112
무형자산	524	315	334	347	357
자산총계	2,534	1,968	2,075	2,446	2,976
유동부채	668	550	594	639	682
단기금융부채	535	453	463	463	463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120	73	99	132	164
단기충당부채	0	0	0	0	0
비유동부채	3	3	4	92	164
장기금융부채	0	0	0	87	159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0	0	0	0	0
장기충당부채	0	0	0	0	0
부채총계	672	553	598	731	846
지배주주지분	1,767	1,380	1,438	1,675	2,089
자본금	78	78	78	78	78
자본잉여금	669	669	669	669	669
기타자본구성요소	-234	-251	-217	-217	-217
자기주식	-212	-226	-104	-104	-104
이익잉여금	1,255	886	910	1,147	1,560
비지배주주지분	95	35	39	40	40
자본총계	1,862	1,415	1,477	1,715	2,129
부채외자본총계	2,534	1,968	2,075	2,446	2,976

현금흐름표

월 결산(억원)	2016	2017	2018E	2019E	2020E
영업활동현금흐름	321	174	-81	7	128
당기순이익(손실)	-4	-380	24	238	415
비현금성항목등	88	426	124	75	67
유형자산감가상각비	32	28	27	21	16
무형자산감가상각비	72	82	86	92	95
기타	-14	242	-46	-131	-196
운전자본감소(증가)	275	132	-185	-230	-221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감소(증가)	24	110	-61	-74	-71
재고자산감소(증가)	263	67	-131	-174	-167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27	-48	23	33	32
기타	15	3	-16	-16	-15
법인세납부	-38	-4	-44	-76	-132
투자활동현금흐름	-98	-153	-559	-100	-100
금융자산감소(증가)	25	-27	-457	0	0
유형자산감소(증가)	-18	-24	0	0	0
무형자산감소(증가)	-99	-105	-105	-105	-105
기타	-6	3	2	5	4
재무활동현금흐름	-279	-108	37	76	58
단기금융부채증가(감소)	-26	-82	10	0	0
장기금융부채증가(감소)	0	0	0	87	72
자본의증가(감소)	-189	-14	39	0	0
배당금의 지급	-50	0	0	0	0
기타	-14	-12	-11	-12	-14
현금의 증가(감소)	-43	-192	-597	-18	86
기초현금	929	886	694	98	80
기말현금	886	694	98	80	166
FCF	190	69	-165	-71	66

자료 : 코나아이, SK증권 추정

포괄손익계산서

월 결산(억원)	2016	2017	2018E	2019E	2020E
매출액	1,179	1,021	1,384	1,853	2,305
매출원가	889	787	855	1,022	1,187
매출총이익	290	234	528	832	1,119
매출총이익률 (%)	24.6	23.0	38.2	44.9	48.5
판매비와관리비	348	332	510	632	748
영업이익	-58	-98	19	200	371
영업이익률 (%)	-5.0	-9.6	1.3	10.8	16.1
비영업손익	-3	-291	45	114	176
순금융비용	9	6	6	7	9
외환관련손익	26	-69	-10	-10	-10
관계기업투자등 관련손익	-9	-10	-1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61	-389	63	314	547
세전계속사업이익률 (%)	-5.2	-38.1	4.6	16.9	23.7
계속사업법인세	-57	-9	39	76	132
계속사업이익	-4	-380	24	238	415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법인세효과	0	0	0	0	0
당기순이익	-4	-380	24	238	415
순이익률 (%)	-0.4	-37.2	1.8	12.8	18.0
지배주주	-12	-369	24	237	414
지배주주귀속 순이익률(%)	-1.03	-36.09	1.7	12.79	17.94
비지배주주	8	-12	1	1	1
총포괄이익	-5	-381	25	238	415
지배주주	-13	-370	24	237	414
비지배주주	8	-12	1	1	1
EBITDA	45	12	131	313	482

주요투자지표

월 결산(억원)	2016	2017	2018E	2019E	2020E
성장성 (%)					
매출액	-45.6	-13.4	35.5	34.0	24.4
영업이익	적전	적지	흑전	976.3	85.1
세전계속사업이익	적전	적지	흑전	396.2	74.3
EBITDA	-90.5	-73.1	974.7	138.1	54.0
EPS(계속사업)	적전	적지	흑전	906.6	74.6
수익성 (%)					
ROE	-0.6	-23.4	1.7	15.2	22.0
ROA	-0.2	-16.9	1.2	10.5	15.3
EBITDA마진	3.9	1.2	9.5	16.9	20.9
안정성 (%)					
유동비율	256.3	245.5	237.5	259.2	292.6
부채비율	36.1	39.1	40.5	42.6	39.7
순차입금/자기자본	-21.4	-23.1	-11.9	-4.1	-4.0
EBITDA/이자비용(배)	3.4	1.0	11.6	27.1	35.1
주당지표 (원)					
EPS(계속사업)	-78	-2,369	151	1,523	2,659
BPS	11,358	8,871	9,244	10,767	13,426
CFPS	589	-1,664	876	2,246	3,372
주당 현금배당금	0	0	0	0	0
Valuation지표 (배)					
PER(최고)	N/A	N/A	126.9	12.6	7.2
PER(최저)	N/A	N/A	64.2	6.4	3.7
PBR(최고)	3.0	1.5	2.1	1.8	1.4
PBR(최저)	1.1	1.0	1.1	0.9	0.7
PCR	20.5	-7.4	20.7	8.1	5.4
EV/EBITDA(최고)	108.1	149.9	21.7	9.5	6.1
EV/EBITDA(최저)	34.3	-23.9	10.5	4.7	3.0